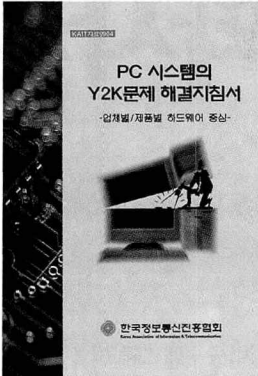


「PC시스템의 Y2K문제해결 지침서」 발간 안내



대규모 사업장의 전산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PC부문 Y2K 문제에 대해서도 PC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최근

국내 PC업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 학생과 기업들의 PC Y2K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모델별 대응방안을 제시한 “PC시스템의 Y2K문제 해결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그 동안 국내 PC제조업체에서는 PC Y2K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 왔으나, 국내 주요 제조 업체별 모든 PC제품에 대한 Y2K 대응지침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이 지침에서는 '96년 하반기 이후 출시된 펜티엄 PC는 H/W부문에서 Y2K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 있으나, '96년 상반기 이전 출시된 486급이하 제품에 대하여는 Y2K문제를 안고 있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날짜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침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재부팅시 날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날짜를 「C:\date」명령을 통해 수정하거나, 각 제조업체별로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보정프로그램(패치파일)을 설치하면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지침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각종 세미나 등 행사 개최시 일반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특히 시민, 학생, 영세규모의 사용기관 등 Y2K 문제 대응 소홀로 혼란이 예상되는 PC사용계층의 Y2K문제 대응 지침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Y2K팀 황호의 (Tel : 582-0100)

“PCS폰 주인 찾아 주기”의 창구 일원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분실 단말기 집중관리 센터 개소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CS 3사는 지난 3월 9일 분실단말기 집중관리 센터 사업추진에 합의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분실한 PCS폰, 안 쓰는 PCS폰, PCS폰용 충전기 및 배터리 등을 접수하고 배송하는 창구 일원화 체계를 전국 우체국(2,798개소)에 구축, “PCS폰 주인 찾아 주기” 운동을 지난 '99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현재 이동전화기 분실신고 건수는 '98.12월말 현재 100만대에 달하며, 안 쓰는 단말기는 '98.8월말 현재 200만대로 추정되어 분실자의 고충 및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 동안 이동전화기 분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은 각사 대리점에서 접수하여 본사로 송부하면 본사에서 주인을 찾아주고 있으나, 습득창고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습득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하고, 본사에서 타사의 분실자를 확인하여 주인에게 전달하는데 과도한 시간간지연 발생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왔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센터는 공

공기관인 전국 우체국망을 통하여 단말기 습득신고 창구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습득신고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협회는 우체국에서 송부한 습득신고서와 단말기를 PCS 3사의 고객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PCS폰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실질적인 운영체제로 분실자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쓰는 PCS폰, 충전기 및 배터리 등은 사업자 및 한국컴퓨터 재활용협회등과 연계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02-3471-1155)는 분실단말기 집중관리 센터운영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우체국, 운수회사, 지하철, 극장, 유실물센터 등에 포스터, 안내전단을 배포하고 주인없는 PCS폰, 안쓰는 PCS폰, 고장난 PCS폰, PCS폰용 충전기 및 배터리 등을 신고한 모든 신고자에게는 경품추첨을 통해 꾸밈한 상품을 주며, 특히 정상으로 작동되는 PCS폰을 신고한 모든 분에게는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CS3사는 본 센터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제고와 건전한 정보통신이용 문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문의전화 : 이동전화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 580-0573)



「정보통신관련 단체 회장단 간담회」개최



정보통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 건설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최한 「정보통신관련 단체 회장단 간담회」가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해 이계철 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김영환 전파진흥협회장, 신윤식 정보산업연합회부회장, 이용태 정보산업연합회회장, 장영달 컴퓨터 게임학회장 등 정보통신관련 업계단체 회장단 및 학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31일 오전 7시 타워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21C 지식정보화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산업 활성화 등 현재 정보통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정보통신관련 업계단체 회장단 및 학회장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였다.

“Y2K부담행위상담센터” 개설

최근 Y2K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제품 및 장비공급 업체들이 Y2K문제를 과장하여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판매한 제품의 문제내재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내기업체의



Y2K문제해결을 지연하는 부당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행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Y2K부당행위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99.4.23일 부터 상담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상담센터를 통해 Y2K 관련제품 및 장비공급자가 Y2K문제 해결지원의 악의적 회피, 정보제공 기피, 과도한 업그레이드 요구 등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및 전문가를 통한 현장 출장진단을 실시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례집발간을 통한 Y2K 부당행위 상담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국내 Non-IT분야 전문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전문인력 POOL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부당행위 내용, 해당설비 및 시스템 내역, 자체진단 결과 등을 준비하여 상담센터로 상담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문의전화 : (02)3487-2222, FAX 3487-2929).

제62회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13일 제62회 이사회(서면결의)를 개최했다.

개최된 이사회 안건은 직제규정 개정의 건과 부설 한국Y2K인증센터 운영 규정 개정의 건, 회원가입 승인의 건으로 모두 3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중 직제규정 개정의 건에서는 그동안 1본부 2실을 3실로 개편, 전략사업실, 사업관리실, 조사연구실로 개편하는 것과, 협회부설 「한국Y2K인증센

터」의 '사무국', '협력실', '중소기업지원실'의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지원실'을 신설하는 한국Y2K인증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것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승인되었다.

또한 이날 회원가입의 승인을 얻은 신규회원은 (주)LG유통, 성우정보통신, (주)고려시스템이다.

제5회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온라인시험 실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제5회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온라인시험을 지난 4. 13일~15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3일간 치뤄진 온라인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총 15,165명, 그중 합격자는 12,749명으로 81.7%의 합격률을 보였다.

곧이어 치뤄질 필기시험은 접수가 '99. 4. 20일~26일까지이며 '99. 5. 30일(일)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도시에서 일제히 치뤄진다.

최종 합격자발표는 '99. 6. 7(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문의 : 인터넷팀 580-0542~5,
[http :// internet.ccpak.or.kr](http://internet.ccpak.or.kr))